

국힘 전대 내일부터 당원투표...수도권·영남권 투표율 주목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이 17일 오후 경기 고양시 고양 소도 아레나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서울 인선 경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표율 높으면 한동훈 유리할 듯...韓측 '투표율·득표율 65% 목표' 원희룡 '영남권 '反韓 결집' 기대...나경원, 60대 이상 투표율 주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원투표를 앞두고 투표율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체 투표율에 더해 지역별, 그리고 연령대별 투표율에 따라 당권주자 간 유불리가 갈린다는 관측에서다. 전체 투표율이 높으면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한동훈 후보가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원투표 선거인단의 77.3%를 수도권(37.0%)과 영남권(40.3%)이 양분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영남권의 투표율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이번 구도에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수도권과 중도층의 투표 참여가 많다는 뜻이고, 결국 이들이 주요 타깃인 한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게 한 후보 측 분석이다.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에 힘입어 이준석 의원이 조직표를 누르고 대표로 선출됐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당시 투표율은 45.4%로, 이전 전당대회였던 2019년 자유한국당 전당대회(24.6%)와 비교해 투표율이 대폭 상승했다.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표'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

고,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의 견제 속에 후보가 불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반면, 단순히 전체 투표율만 놓고 후보 간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투표율은 55.1%로 높은 편이었는데, 당시에는 친윤계의 조직력이 작용해 김기현 의원이 1차 투표에서 대표로 선출됐다는 것이다. 일단 한 후보 측은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높은 65% 투표율을 목표로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투표 참여가 많을수록 조직표의 영향력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렸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결선 없이 끝내자'라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수도권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투표율과 득표율 모두 65%가 목표"라고 말했다.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인 영남권과 고령층의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원 후보가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제삼자 추천 채상병검검문제 등으로 한 후보를 견제했

던 배경도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영남 당원들의 심리를 자극하려는 의도였기 때문이다. 원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남표가 결집하면 특정 후보의 과반을 저지할 수 있다"면서 "보수층이 한 후보를 보는 시선은 신선험보다는 불안함"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도 이번 총선의 '수도권 협지'인 서울 동작을에서 생존한 저력과 중진 의원의 강점을 살려 영남 보수층 표심에 대한 소구력을 자신하고 있다. 나 후보 측은 또 선거인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60대(30.7%)와 70대 이상(15.1%) 당원들의 투표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 오래 있던 당원들이나 후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며 "이들의 투표율이 높을수록 현장 당심이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천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윤상현 후보는 혁신 이미지를 내세워 중도 성향의 당심과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국민의힘 차기 대표는 당원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로 선출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19~20일 이틀간 모바일로, 21~22일 ARS 투표로 진행된다. 21~22일에는 국민여론조사도 이뤄진다. /연합뉴스

오늘 차관급 인사 ...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7일 예정됐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일정을 취소하고 각 지자체장에게 피해복구와 대처에 진력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차관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는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돼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태영호 전 의원이 특수 신분인 만큼 검증 과정에서 조금 신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사무처장은 의장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민주평통 사무를 총괄한다. 다음 달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으로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특히 인선에 신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경찰대 6기로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에는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중소벤처비서관이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진을 행정부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에 배치함으로써 용산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국지방신문협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인터뷰 - 나경원

“광주와 호남 더 이상 흘대 안 돼 유능한 보수정치로 선택 받겠다”

“광주와 호남 몫의 비례대표 지역 당원·국민이 직접 뽑아야”



나경원 후보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경인일보 최은성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나경원 후보는 “더 이상 광주와 호남이 흘대 받아서는 안 된다. 당당하고 유능한 보수의 정치로 호남 경제를 발전시키고, 호남 주민 여러분께 멋있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당 대표 후보는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호남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제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광주와 호남 몫의 비례대표는 해당 지역 당원과 국민이 직접 뽑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지역에서 진행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아직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한 지역도 곧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광주의 대통령 민생토론회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반드시 개최될 수 있을 것이며, 당 대표로서 정부와 광주·전남 간 소통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후보가 “자신이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한동훈 후보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사 논란은 총선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며, 당사자가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당대표가 임의적인 판단으로 무시했다”면서 “총선 결과가 정무적 판단의 실패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제는 결국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계획적·의도적 행동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나 후보는 “다른 (후보)분들은 음해하고 싸울지라도 나경원은 계속 비전 제시를 하고 있고, 안보문제부터 민생문제까지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갈등을 좋아하는 후보들은 당대표 선거가 아니라 링 밖으로 나가 마옵겠 싸우는 것이 당을 돕는 길이고, 보수를 위한 길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광주일보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